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고등편

• 김은석 지음 •





역사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즐거운 국사수업』은 고등학교 국사 1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선사시대부터 근대 태동기인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능 등에서 만화, 영화, 드라마, 연극, 신문, 가상 일기, 답사, 가상 체험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문답식, 대화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현대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만화, 도표, 대본, 인터넷 검색, 이메일, 답사 보고서, 역사 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9 788985 32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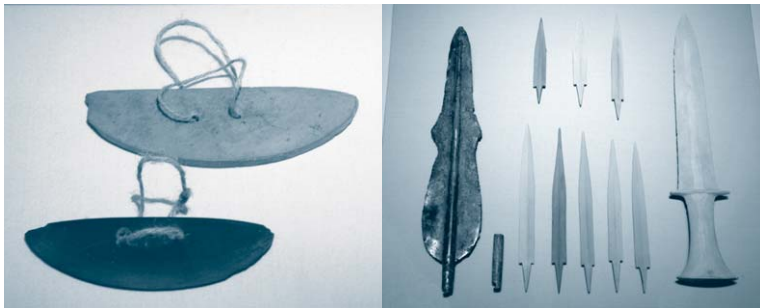
ISBN 978-89-85321-96-9

값 13,000원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의 생활

■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반달돌칼(왼쪽)과 비파형 동검, 마제석검(오른쪽)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 아연을 섞어 만든 금속입니다. 구리와 주석, 아연은 비교적 쉽게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가장 먼저 이용한 금속들입니다. 청동기시대에는 청동기(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뿐만 아니라

석기(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흙자귀)도 사용되었고, 토기(민무늬토기,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고인돌은 그 분포 지역 범위가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지역 범위가 같은 청동기 문화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말해주는 유물들이랍니다. 당시 요동반도에서 한반도 북부까지를 하나의 청동기 문화권으로 하는 정치세력은 고조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 철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다

철기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철기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동기시대에는 청동 농기구가 없었습니다. 청동기시대에는 청동이 매우 귀한 금속이었기에 농기구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철기시대에는 철이 비교적 흔한 금속이 되었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기 철기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철기시대가 되자 청동기는 실제 생활에 사용되지 못하고 제사 등에 쓰이는 의식용 도구로 바뀌었어요. 철기가 청동기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전쟁, 농사에서 철기를 쓰는 것은 당연하죠. 자연히 청동기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지 않게 되고 제사 등의 의식에만 쓰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철기시대에 발견되는 청동기들은 청동기시대에 발견되는 청동기보다 더 정교해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제작 기술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계속 사용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

들이 제사 등의 의식에 관련된 관습은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철기시대에도 청동기시대처럼 제사 등의 의식에 청동기를 계속 사용하였답니다.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쓰는 의식용 제기로 나무 제기를 계속 쓰고 있죠? 왜일까요? 의식에 관련된 관습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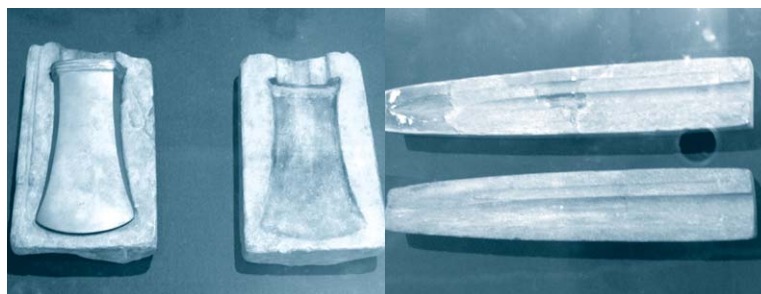
거천무늬 거울(왼쪽)과 잔무늬 거울(오른쪽)

철기시대 무덤(널무덤, 독무덤)에서는 또한 거푸집이 발견되었습니다. 거푸집은 청동 주물을 부어 청동기를 만드는 틀입니다. 청동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거푸집의 발견은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증거인 것입니다. 철기시대 무덤에서는 중국 돈(명도전, 오수전, 반량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며 돈을 사용했음을 말해줍니다. 즉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붓도 발견되었습니다. 붓은 글을 썼다는 증거이고, 당시의 글은 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했다는 대표적 증거랍니다. 붓의 발견 역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 훗날 우리나라 땅에서 달리를 발견한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미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컴퓨터 자판을 발견한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한글과 영어, 한자

를 사용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붓(왼쪽)과 명도전(오른쪽)



거꾸집(왼쪽, 오른쪽) :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증거.

■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청동기시대의 집터 유적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데, 대개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낮은 야산이 있는 곳에 있어요. 지금도 농촌 마을에 가면 이러한 전통적인 자연 취락들이 많죠. 이 시기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집터의 모양은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그 규모가 커졌고, 움집은 그 깊이가

얕아지며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신석기시대 집터의 모양이 원형이나 모가 둥근 방형(사각형)이었고, 땅을 약간 파고 움집을 만들었다는 것과 비교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농경은 청동기시대에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농경이 생산 활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저습지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조, 보리, 콩, 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죠.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도 계속되었지만 농경이 발달하면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소, 돼지, 말 등의 가축은 이전보다 더 많이 키우게 되었죠.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발달은,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인구도 증가하여 정착생활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며 안정되어갔습니다.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많은 수의 집터가 밀집되어 발견되고,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집터의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주거용 집, 창고, 공동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조직이 발달한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청동기시대부터 계급사회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고인돌입니다(이외에도 돌널무덤, 돌무지무덤이 있죠). 고인돌은 그 무게가 적게는 수 톤에서 많게는 수십 톤이나 되니까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보통 젊은 남자 수백 명 이상의 힘이 필요하였죠. 집터 크기로 볼 때 한 가족의 규모는 4~8명 정도로 추산되므로 한 부족의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야, 모두 나와서 고인돌 만들자!”라고 말하면 수백 명 또는 천 명 이상이 나와서 고인돌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권력과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인돌(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당연히 당시의 족장이나 가진 자 그리고 그



고인돌 아래에 시체를 매장한 모습을 복원한 전시물(왼쪽)과 무거운 돌을 통나무 등으로 이동시켜 고인돌을 만드는 모습을 복원한 전시물(오른쪽)

전남 고창 고인돌 유적지 소재.

가족들(지배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청동기시대부터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잉여(남는) 생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는 것은 누가 차지할까요? 당연히 힘이 강한 자가 차지합니다. 덩치 크고 주먹 센 인간이 “남은 거 내가 먹을 건데 불만 있냐?”라고 하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이처럼 남는 것을 힘이 강한 자가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소수의 지배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진 게 없는 빈자가 되었죠. 이것을 빈부 격차의 발생 및 심화라고 합니다. 결국 소수의 부자는 지배층이 되고 다수의 가난한 자는 피지배층이 되는 계급의 분화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급의 분화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배계급을 위하여 무덤의 크기가 거대한 고인돌이 생기고, 고인돌 밑에는 청동 검, 청동 거울 등 당시의 귀한 물건들을 껴묻거리(무덤 안에 시체와 같이 묻는 물건들)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죽으

면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보통 사람들은 초라하게 묻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계급의 분화와 함께 남녀 간의 불평등도 시작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남(男)자들은 밭(田)에서 힘(力)을 쓰며 경제 활동에서 여성을 압도하게 됩니다. 계급의 분화과정에서 잉여 생산물을 누가 차지하였죠? 바로 힘이 강한 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힘이 강한가요? 남자가 강하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힘이 강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농사를 짓거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자들은 애 보고, 밥하고, 빨래하는 등등 집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하는 일이 나뉘지며 남녀(성) 간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고착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청동제 무기, 철제 무기 등 금속으로 만든 무기의 사용은 전투력의 향상을 가져와 대외적인 정복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은 지배자가 되고, 패배한 부족은 피지배자가 되는 계급 분화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누렸던 평등사회는 이기적인 계급사회로 변질되었고,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한 지배자가 출현했는데 이 지배자가 바로 족장(군장)입니다. 힘이 강한 부족은 스스로 선민사상(하늘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하다, 우리들은 평범한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난 특별하니까, 난 노는 물이 달라. 왕자병, 공주병 비슷한 거예요)으로 정신적인 무장을 하여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나아가 승리한 부족은 패배한 부족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와 수탈 역시 선민사상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은 하늘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지배하고 공납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중세의 정치

■ 고려,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다

궁예를 쫓아내고 정권을 잡은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꾸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말이에요. 고구려의 준말이죠. 고구려 시대에도 보통 고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라고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려는 고구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고구려를 되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고구려의 영광을 되살려서 만주 땅을 되찾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죠. 그래서 북진정책의 의지를 국호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서울은 개경, 지금의 개성입니다. 개성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개경의 원래 이름은 송악이었습니다. 송악이 고려의 서울이 된 이유

는 왕건의 근거지였기 때문이었죠. 왕건은 송악의 호족이었습니다. 궁예는 처음에 송악을 서울로 삼았는데 송악이 왕건의 근거지인 것이 짝 짝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으로 서울을 옮겨 자신의 근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궁예를 쫓아낸 왕건은 당연히 송악으로 서울을 옮겼습니다.

이제 나라를 세운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후삼국 통일이죠. 통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 왕건은 호족들을 통합하고 중국 5대 여러 나라(당시 중국은 5대 10국의 분열, 혼란기)와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후백제와 통일을 위해 경쟁하는데 지방 세력들이 뒤통수치고, 중국에서 까불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미리미리 안팎으로 안정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왕건이 가장 먼저 통합을 한 것은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들이었습니다.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하자(926) 고구려계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후삼국 통일 직전인 934년 들어오자 왕건은 이들을 우대하여 동족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망하여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망하여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망명한다면 당연히 받아주어야 하겠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역사에 다른 나라가 망하여 유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는 이때뿐입니다. 왜일까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고려의 재통일은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까지 포함한 진정한 민족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건의 통일정책은 포용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비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보다는 쌀,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 경제 협력, 관광 사업 등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건은 궁예나 견훤과 달리 신라에 대하여 포용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의 경애왕을 살해하는 등 침략과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왕건은 이러한 후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신라를 도움으로써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나라를 바쳤습니다(935). 따뜻한 햇볕이 신라인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한편 후백제에서는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열 받잖아요? 그래서 탈출하여 왕건에게 와서 항복합니다. 왕건은 오랜 라이벌이었던 견훤도 포용합니다. 그리고 후백제를 정벌하여 신검의 항복을 받아 후삼국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936). 드디어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 태조의 정책

태조의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 호족 통합, 왕권 안정, 복진정책입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 태조는 취민유도(取民有度,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 지나치게 걷지 말라는 뜻)를 내세워 호족들이 과도한 조세 수취를 못하도록 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민생(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세금 적게 내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당장 정부 욕합니다. 태조는 백성들의 지지

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태조는 또 흑창을 만들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존중하여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이루어 민생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이었죠.



태조는 호족 통합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당근으로 회유하는 의미에서 공신과 호족들을 중앙 고위 관리에 임명하여 권력을 주었습니다. 공신, 호족들에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또 각 지방의 힘 있는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부인이 2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략 결혼, 결혼으로 인척을 이루어 호족들을 통합했던 것입니다. 또 사성(성을 하사) 정책이라 하여 왕건의 성인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성을 쓰는 ‘패밀리’라 이겁니다.

반면에 채찍으로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심관제도는 중앙 관리 중 자신의 출신 지

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리 임명권을 주고 호족들에 대한 통제를 책임지는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부천이라면 부천의 사심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천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으로 여러분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천 지역의 호족들을 잘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들의 자식들을 개경에 올려보내서 왕실 호위 등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왕실 호위지 한마디로 인질입니다. 반란 일으키면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태조는 왕권 안정을 위해 『정계』, 『계백료서』를 지었습니다. 이 책들의 주제는 임금에 대해 신하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충성하라는 뜻이죠. 또 죽으면서 유언으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내용은 후대 왕들이 유지해나가야 하는 국가통치 정책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왕 노릇 잘해야 오래오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음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북진정책은 한마디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고려라는 국호부터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죠. 또한 평양을 서경이라 하여 제2의 서울로 삼고 북진정책의 중심지로 개발하였습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서울이었습니다. 즉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 평양으로 서울을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또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외교를 벌였습니다. 거란이 사신들을 보내자 거란은 무도한 나라라고 하며, 사신들은 유배를 보내고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마리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 놓고 굶겨 죽였습니다. 왜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민 거란의 손을 뿌리쳤을까요? 맞습니다. 거란은 동쪽 국가 발해를 멸망시킨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북쪽 땅을 빼앗은 나라가 있다면 우리들의 원수가 되겠죠? 결국 이러한 북진정책의 결과 청천강~영흥의 국경선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 태조가 죽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다

태조 왕건이 죽자 큰아들
혜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29
명의 아버지들이 누구니까? 호족들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력한 호족
들이었죠. 외손자가 왕이 된다면 자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종의 뒤통수를 노리는 왕자들과 외척들(왕자의 외할아버지인 호
족들)이 많았습니다. 왕건의 첫째부인은 자식이 없었고, 둘째부인이 낳
은 큰 아들이 바로 혜종이었죠. 그리고 셋째부인이 낳은 둘째아들이 정
종, 셋째아들이 광종입니다. 왕규 역시 왕건에게 두 명의 딸을 시집보낸
호족이었죠. 결국 혜종의 죽음, 왕규의 난, 정종의 왕권 불안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 광종, 왕권을 강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종에
이어 즉위한 광종(정종의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형들이 모두
왕권 불안에 시달리고 동생들과 호족 세력이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왕권 강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가장 먼
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안검
법은 노비들을 안검(조사)하는 법이죠. 불법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
정을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후삼국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죠? 많은 전쟁포로들이 노비가 되었는데, 이

렇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법이었죠.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을 극화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 **광종** : 후삼국 통일 때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호족들의 노비가 되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비안검법을 반포할 것이다.

▶ **호족들** : 전쟁포로를 노비로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 된 일이야?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 호족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음모다. 노비안검법 결사 반대한다!

▷ **광종** : 이것들이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리 말들이 많아! 호족 니들이 뭐라고 떠들든 나는 노비들 중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여 모두 해방시킬 것이다.

▶ **백성1** : 노비안검법이 반포되어 모든 노비들은 관청에 신고를 하라는구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모두 양민으로 해방시켜 준다네.

▶ **백성2** : 정말인가? 임금님께서 못된 호족들로부터 억울한 노비들을 해방시켜주시다니. 만세! 임금님, 만만세!

이렇게 광종이 노린 목적은 바로 공신, 호족 세력의 약화였습니다. 노비들은 공신, 호족들의 재산이었죠. 노비가 해방되면 이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노비들은 자신을 풀어준 ‘광종 만세’를 외쳤고, 양인이 되어 세금을 내면서(노비들은 가축과 같았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세금 내는 거 봤어요?ㄹㄹ;) 국가 재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광종은 이어서 과거제도를 이용하여 호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과

거제도도 한마디로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하여 관리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공신, 호족 세력들이 지들끼리 짝짜꿍하면서 관리가 되었죠. 당연히 자신들을 뽑아준 지들 아버지한테 충성하지 국왕한테 충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종의 목적은 과거제도로 자신이 직접 관리들을 뽑아서 신진관료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세력인 호족, 공신 세력들을 몰아내고 신세력인 신진관료들을 등용하는 신규 세력의 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광종은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관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게 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위계질서를 확립하면 위계질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왕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군대에서 계급장 표시가 작대기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하여 호족 세력들은 당연히 반대했죠. 결국 광종에게 반항하는 공신, 호족들을 역적으로 죽여버리는 등 반대세력들을 숙청하여 왕권에 위협을 주는 세력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왕을 황제라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광덕, 준풍)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칭제건원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왕권이 황제처럼 강해졌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죠. 이러한 광종의 정치 결과 공신, 호족 세력들은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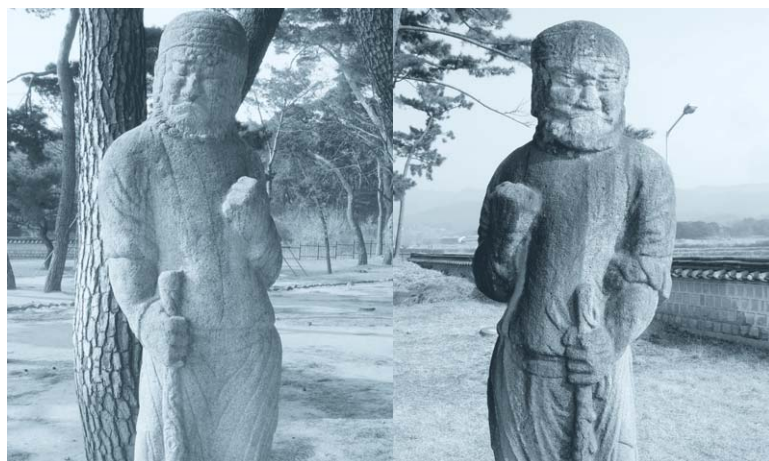
상업과 무역의 발달

■ 고대의 상업과 무역

삼국시대 신라는 경주에 동시라는 시장을 열었고,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남조, 북조, 북방 유목민족과 무역을 하였고, 백제는 중국의 남조, 왜와 무역을 하였습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에는 고구려,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당항성(현재 경기도 화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무역하였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원래의 동시 이외에 서시, 남시를 열었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시장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당과는 공무역, 사무역이 모두 발달하였고, 일본과는 8세기 이후(처음에는 일본과 사이가 나빴죠) 무역을 하였습니다. 또 울산에 이슬람 상인이 와서 무역을 할 정도로 국제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은 울산에 배를 타고 들어온 용왕의 아들로 묘사되었죠. 그래서 처용

은 울산에 무역을 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 이슬람 상인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역사 자료에는 'Shila'라는 나라에 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가서 무역을 하고 아예 정착을 하여 살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이슬람의 세계지도에는 신라가 그려져 있을 정도죠.



경북 경주 패릉(원성왕릉)을 지키고 있는 무인석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슬람 상인들이 신라에 와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신라인들은 활발한 국제 무역 활동을 하었는데, 그 대표적 증거가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널리 퍼져 있던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촌, 신라인들을 다스리는 자치 기관인 신라소, 신라인들의 여관인 신라관, 신라인들이 다니던 절인 신라원 등입니다. 일본의 승려인 엔닌이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에는 이 지역 곳곳에 퍼져 있던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에서 무역 활동을 하며 살았던 '신

라타운’(현재 미국 곳곳에 있는 코리아타운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세기에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청해진(현재 완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신라, 당,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 「해신」에서도 나왔지만 장보고는 어려서 당나라에 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에서 무역을 하며 신라방, 신라촌에 살고 있는 모습도 드라마에 나왔었습니다. 다시 신라에 돌아온 장보고는 청해진 대사가 되어 해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뒤 신라, 당,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완도에는 청해진 터가 있고, 산둥 반도에는 장보고가 세운 신라원인 법화원이 남아 있고, 일본에는 장보고를 신으로 모신 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장보고가 신라, 당, 일본을 아우르는 해상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장보고는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 속에서 자객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의 영웅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을 하였습니다.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신라 사람들이 머무르는 여관이었던 신라관처럼 발해 사람들이 머무르는 여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규모도 비교적 크고 활발하였습니다. 신라와는 신라도를 통하여 무역 등 교류를 하였습니다.



장보고 영정



장보고의 기상이 서려 있는 청해진(완도)

체험학습 계획서

- 주제 : 통일신라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 기간 : 2009년10월 5일~2009년10월 9일(4박 5일)

- 경로 : 경주 출발
 - 완도(청해진)
 - 중국 양주
 - 영파(명주)
 - 등주(법화원)
 - 인천
 - 경주에서 해산

- 인솔 교사 : 5명
- 참가 학생 : 100명



△△고등학교

■ 혼인제도의 변화

고려시대에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 혼인, 즉 근친혼이 성행하였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자겸이 자신의 외손자인 인종에게 두 딸을 다시 시집보낸 것이죠(인종은 이모들과 결혼하였던 것이죠^^).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근친혼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귀족들이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근친혼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원 간섭기 때 박유가 첩을 허용하는 일부다처제를 주장했다가 당시 여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일이 있을 정도로 고려 여성들의 지위는 강했었죠. 조선시대 역시 기본적인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첩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일부일처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첩의 자식인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제사와 재산 상속에서도 차별받았습니다. 첩을 둘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 입장은 첩을 두면 첩의 자식인 서얼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었죠. 조선시대에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여자는 14세, 남자는 15세였는데, 대개 집안의 가장이 혼인에 대해 결정하였습니다.

■ 여성 지위의 변화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아들, 딸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이를 자녀 균분 상속이라고 하죠. 자녀 균분 상속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형제들이 제사 음식 등의 책임을 각각 나누어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 여성과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부모의 유산은 어떻게 상속되었나요?

▶ **고려 여성** :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어요.

▷ **기자** : 아들이 없으면 제사는 누가 지냈나요?

▶ **고려 여성** : 딸도 자식이죠.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딸이 제사를 지냈죠.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도 양자를 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 **기자** : 호적에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기재하였나요?

▶ **고려 여성** : 태어난 차례대로 기록할 뿐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았습다.

▷ **기자** : 상복 제도에서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있었나요?

▶ **고려 여성** : 상복을 입는 기간 등을 규정한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 **기자** : 음서의 혜택을 사위, 외손자들도 받을 수 있었나요?

▶ **고려 여성** :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사위와 외손자도 받았고,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에게도 상을 주었죠.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할 수 있죠.

▷ **기자** : 과부나 이혼한 여인들은 다시 결혼할 수 있었나요?

▶ **고려 여성** : 물론이죠. 재혼하여 태어난 자식들도 사회적 진출(과거시험 응시 제한 등)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 **기자** : 결혼하면 처가살이하는 남자들도 있었나요?

▶ **고려 여성** : 예,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 중기까지도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처가살이하는 경우가 있었고(이이가 외가인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이러한 풍속 때문이었죠), 자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상속 재산 중 5분의 1을 더 주었습니다. 이외의 재산은 아들, 딸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형제들이 제사 음식 등의 책임을 각각 나누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 가족제도(가부장적 가족제도, 남녀 불평등사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여성과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부모의 유산은 어떻게 상속되었나요?

▶ **조선 후기 여성** :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던 제사를 큰아들이 지내게 되면서 재산도 큰아들에게 대부분이 돌아가고, 다른 형제들은 일부의 재산만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들은 가장 먼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들 중심으로 제사와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남아 선호가 나타났고,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이었습니다.

▷ **기자** : 그렇다면 족보 편찬에도 변화가 나타났겠군요.

▶ **조선 후기 여성** :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족보에서도 나타나 조선 초기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연령순으로 기재하던 것이 점차 부계 위주의 족보가 편찬되어 아들들을 연령순으로 먼저 기록하고 딸과 사위의 이름은 그 다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 **기자** : 처가살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 **조선 후기 여성** : 처가살이가 사라지면서 같은 성씨의 사람끼리 거주하는 동성 마을이 많아지고, 개인은 개별적 존재가 아닌 종중(부계 위주 친족 집단)의 일부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 **기자** : 과부의 재가(재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조선 후기 여성** : 엄격하게 금지되어 만약 재혼으로 태어난 자식인 경우에는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효자나 열녀를 표창하였는데, 젊은 과부가 남편을 따라 자살하여 열녀가 되는 분위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역사

■ 한자의 토착화

철기시대의 유적지인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는 붓이 발견되었습니다. 붓은 글을 쓴 증거이고, 당시의 글은 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했다는 대표적 증거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철기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는 이두, 향찰을 만들어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置(돌 치)古(옛 고)는 ‘두고’라는 우리말을 한자의 뜻(돌)과 소리(고)를 빌려 표현한 것인데,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기록되어 있는 향가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쓴 것입니다. 통일신라에서는 화랑과 승려들이 향가를 지어 불렀는데,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향가를 모아 만든 『삼대목』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향가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져서 광종 때의 스님 균

여의 전기인 『균여전』에 그가 지은 「보현십원가」 11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자, 이두, 향찰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조선 한자음의 혼란 문제(한자는 중국 발음을 표현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에 대해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자를 만들어 한자 발음의 기준을 정해야 했던 것입니다)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교화(피지배층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배층이 한자로 교화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층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습니다)하여 양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말을 표현할 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 세종대왕의 최고 업적은 한글 창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였습니다(1446). 한글은 글자 수가 적고,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훌륭한 문자입니다. 표현 못하는 소리가 없을 정도죠. 심지어는 ‘뽀’도 표현하니까요.ㅋㅋㅋ. 한글은 특히 현대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문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채팅, 문자 메시지 쓰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한글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국어나 일본어에는 한자를 섞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 알파벳을 쓰고 일일이 한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10초면 쓸 것을 그들은 1분 이상 걸리는

것이죠. 정보화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가장 적합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창제 후 조선 정부는 한글이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등을 한글로 지어 간행하였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왕실의 조상들을 칭송한 글이었죠.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도록 한글에 왕실의 위상을 더하여 한글의 위상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이나 불경들을 한글로 간행한 이유는 당시 백성들이 불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종교개혁을 계기로 성경이 각국의 고유언어로 번역되면서 문자가 보급되고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한문을 모르던 불교 신자들에게 한글로 된 불경은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윤리서, 농서, 병서는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농업 기술을 빠르게 전파하며, 군사훈련과 전쟁 대비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글로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직접 접하는 행정 실무를 맡은 서리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서리 채용 시험에 훈민정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한글을 사용하는데 백성들과 상대하는 서리들이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리들의 한글 사용 능력을 평가하여 한글을 읽고 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발달과 함께 국학이 연구되면서 우리의 한글을 연구한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 등이 나왔고, 우리의 지방 사투리와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정리한 이의봉의 『고금석림』도 편찬되었습니다. 또 백과사전류의 저서가 많이 편찬되었는데, 최초의 백과사전은 17세기에 쓰인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며, 18~19세기에는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영·정조 때는 『동국문헌비고』(한국학 백과사전)가 편찬되기도 하였습니다.

■ 근대 태동기 서민 문학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허균의 『홍길동전』은 당시 서민들에게 널리 읽힌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주인공 홍길동은 서얼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며 활빈당을 이끌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를 응징하였죠. 결국엔 홍길동이 율도국이란 먼 섬나라에 이상사회를 건설하면서 끝이 납니다. 또 한글 소설의 대표작인 『춘향전』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양반 이몽룡을 기다리며 정조를 지키고 탐관오리 변학도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신분 차별의 폐단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별주부전』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토끼의 간을 빼앗아 오라면서 자라를 육지로 보낸 용왕과 간을 꺼내놓고 왔다는 거짓말로 용왕을 속이고 살아남은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심청전』은 효녀 심청이 장님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빠졌지만 오히려 왕비가 되고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화홍련』은 계모에게 살해당한 장화와 홍련 자매가 귀신이 되어 원한을 푸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사설시조에는 서민들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의 3·4·3·4, 3·4·3·4, 3·5·4·3 등의 격식에서 벗어나 마치 랩을 하듯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사회 모순에 대한



『춘향전』의 배경 장소인 광한루 : 전남 남원 소재.

비판을 거침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양반들처럼 배운 사람들은 배운 그대로 격식에 매여 있었지만, 못 배운 서민들은 격식을 파괴하고 자신이 아는 상식으로 사회문제를 비판하며 자신의 느낌 그대로 표현하였던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랩송의 가사를 보면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사회·교육·정치 문제까지도 비판하고 심지어는 비속어나 욕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시조는 조선 후기의 랩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이 한자로 쓴 한문학에서도 사회 모순을 비판하였습니다. 중상학과 실학자였던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옹전』 등의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신분제를 비판하고, 실용을 주장하고, 문체 혁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농학과 실학자인 정약용은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한시를 썼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정조의 사망

이후 정계에서 쫓겨나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세도정치 시기에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계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현실을 비판하는 한시라도 지었던 것입니다. 중인층의 시 동호인들은 시사(시 동호회)를 조직하여 시를 짓고 모아서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삿갓, 정수동 등은 민중들 속에서 활동하며 풍자적인 시를 지어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